

서른일곱 번째 날_3월 31일 (수요일)

2021년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기도문



2021년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기도문 .

생명의 하나님!

남북(북남)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지구촌은 지난 2020년 벽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19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질병의 확산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북과 남)은 물론 전 세계가 혹독한 아픔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남과 북(북과 남)의 형제와 자매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자연 세계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역사의 하나님!

금년 2021년은 일본 식민지에서의 해방의 환희와 동시에 통한의 남북(북남)분단 76년, 남북(북남)이 민족의 숙원인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개별 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에 이르는 해입니다. 하오나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연습하며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화해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는 이토록 안타까운 분단의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하고, 민족사의 단절을 평화공존과 통일로 극복하므로 한(조선)반도 위에 하나 된 민족사의 위대한 부활이 새롭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북과 남)이 30년 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화해’, ‘상호불가침’, ‘교류 협력’ 등에 관한 남북(북남)기본합의서에 합의하면서 한(조선)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 가득 담았던 아름다운 역사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남북(북남)이 잊혀져 가는 남북(북남)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게 하옵소서. 남북(북남)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멈추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평화를 누리며, 감동적인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경받는 통일국가로 거듭나게 하여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정전 이후, 6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비무장지대에 외롭게 멈추어 서 있는 녹슨 철마가 이제 다시 남북(북남)의 사랑과 희망, 웅비와 번영의 미래를 가득 담아 남북(북남)을 연결하고 대륙을 행하여 힘차게 달리게 하여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남북(북남)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루속히 분단이라는 비탄의 역사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화해하고 동포애를 나누면서 환희 가득한 통일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2021년 만물이 소생하는 봄, 부활절을 맞이하여 남북(북남)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새로운 미래를 영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4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사진 비무장지대에 걸려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영원하는 순례자들의 기도문이 적힌 리본들.
그레고리 드 폼벨리, 세계교회협의회.

2021 Joint South-North (North-South) Easter Prayer- South Draft

God of life!

Christians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give you thanks for uniting us with Jesus Christ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In you we hope; in you we live.

God of healing!

The global community has been experiencing chaos and disord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since the beginning of 2020. We pray for good health and healing not only for the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all around the world including your creation.

God of history!

This year, 2021, marks the 76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zation. Both the US and South Korean troops, however, are still practicing war games, pointing guns at each other's hearts. In the power of resurrection, we pray that we may be able to firmly end to this long painful division and realize our hope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God of love and peace!

Help us to reaffirm the 1991 inter-Korean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exchanges and cooperation as a transformational expression for peace and reunification. Help us to realize lively civilian exchang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God of hope!

We ask you that the rusty trains, halted in the Demilitarized Zone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for 68 years, may run again on the track carrying peace and prosperity with them to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We also ask you to defeat the sin of division through the power of resurrection and give us a new life filled with the joy of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risen one, who lives among us, for a peaceful futur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the whole world.

Amen.

4 April 202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서른여덟 번째 날_4월 1일 (목요일)

다시 한번, 통일 훈풍이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주겠다. 너희는 안심하고 잠잘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레위기 26:2 현대인의 성경>

“옥류관 제1호점.....”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많은 이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바로 “평양냉면”이었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들이 회담 기간의 만찬 메뉴였던 “평양냉면”과 “옥류관”에 대한 많은 기사들을 쏟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만찬이 열렸던 그날, 많은 이들이 평양냉면집에 줄을 섰고, SNS에 냉면을 앞에 두고 ‘셀카’를 찍어 해시태그(#)에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날’, 그리고 ‘평양냉면’이라는 문구를 달아 올리느라 분주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또한 냉면을 ‘피스 누들(Peace Noodle)’이라 칭하며 평양냉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로, 평양냉면이 가져다 준 평화와 통일의 훈풍이 한반도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020년 미국대선이후 새로 들어선 미국 정부가 어떤 대북 외교정책을 펼칠 지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에 통일의 훈풍이 불고, 통일이 되어 남한 땅에 옥류관 제1호점이 들어오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반도를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들이 한반도의 통일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남과 북 우리 민족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우리의 자주적인 힘으로 한반도에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른아홉 번째 날_4월 2일 (금요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편 110:3)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을 허락하소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얻은 민주화 이후, “통일”이라는 화두가 시민단체와 대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운동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말과 90년대를 거치며 통일에 대한 열망이 붓물처럼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에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IMF를 거치고, 2000년을 거치며 한국사회 속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과 담론이 조금씩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통일연구원은 2016년 이래로 매년 6월 25일을 기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는 “통일을 선호한다”고 대답한 이들이 37.3%에 달했지만, 2020년 통계자료에서는 26.3%의 국민들만이 통일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5년 사이에 11.0% 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은 서서히 감소할 것입니다.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고 통일 시대를 살아갈 이들은 한반도의 청년과 청소년들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처럼, 통일의 날에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통일의 주역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통일의 시대를 살아갈 남북한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한반도에서 이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통일의 날에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통일의 주역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흔 번째 날_4월 3일 (토요일)

구름처럼 바람처럼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요엘 2: 28 현대인의 성경>

잠꼬대 아닌 잠꼬대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권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권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닐까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구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구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 있지 않아
 모란봉에 올라 대동산 흐르는 물에
 가슴 적실 생각을 해보라고
 거리 거리를 거닐면서 오가는 사람 손을 잡고
 손바닥 온기로 회포를 푸는 거지
 얼어붙었던 마음 풀어버리는 거지
 난 그들을 괴뢰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
 동무라는 좋은 우리말 있지 않아
 동무라고 부르면서 열 살 스무 살 때로
 돌아가는 거지

아 얼마나 좋을까
 그때 일본 제국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이천만이 한 마음이었거든
 한 마음
 그래 그 한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당나라 백만 대군을 물리쳤잖아

아 그 한 마음으로
칠천만이 한겨레라는 걸 확인할 참이라고
오가는 눈길에서 화끈하는 숨결에서 말이야
아마도 서로 부동켜 안고 평양 거리를 뒹굴겠지
사십 사 년이나 억울하게도 서로 눈을 흘기며
부끄럽게도 부끄럽게도 서로 찢러 죽이면서
괴뢰니 주구니 하며 원수가 되어 대립하던
사상이니 이념이니 제도니 하던 신주단지들을
부수어버리면서 말이야

뱃속 편한 소리 하고 있구만
누가 자넬 평양에 가게 한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구

객적은 소리 하지 말라구
난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것 말이야
된다는 일 하라는 일을 순순히 하고는
총성을 맹세하고 목을 내대고 수행하고는
훈장이나 타는 일인 줄 아는가
아니라구 그게 아니라구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구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구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넋만은 살아 자유의 깃발을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사는 거지

올해 사순절 목상을 문익환 목사님의 시 '꿈을 비는 마음'으로 시작했기에 문익환 목사님의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로 마치려 합니다. 올해 40일 동안 우리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정의와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목상이 한 여름 낮잠의 잠꼬대가 되지 않고 실현되는 그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여러분과 같이 평양에서 냉면도 먹고, 원산 앞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 금강산에 올라가보고 칠골이나 봉수 교회에 가서 8.15 합동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잠꼬대 아닌 잠꼬대를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삶과 한반도의 우리 민족 안에서 오늘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